



사랑의 라면 전달식



사회안전망 운영



제1회 부산도시가스 기능올림픽

## 부산도시가스 '착한에너지학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부산시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부산도시가스(대표이사 김영광)가 다양한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단순한 금전 기부를 넘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지역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 활동이 '착한에너지학교'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와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도시가스 임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며,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교구를 활용한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도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부산시 수영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직원들이 매

일 점심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준다.

부산도시가스의 사회공헌은 겨울에 더 빛을 발한다.



매년 11월께 부산시가 주최하는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에 동참한다.

2018년에는 임직원 20명이 직접 담근 김치를 부산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성금 1천만 원도 후원했다.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행사도 지속해서 연다. 10회째인 지난해에는 부산진구청, 부산진구 장애인 협회와 연계해 부산진구 장애인 복지시설에 라면 770박스를 건넸다.

도시가스 안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사회배려대상 세대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머 콕'을 무료로 설치한다.

타이머 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잠기도록 한 장치다.

또 가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면서 안전

문화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한다.

이밖에 부산도시가스는 지난해 9월 20일 국내 도시가스업계 최초로 '제1회 부산도시가스 기능올림픽'을 개최했다.

본사 사옥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부산도시가스의 우수 기술인 중압배관 사고대응기술 시연과 일본 오사카 가스의 PE 배관 용착부 초음파 검사장치, 가스안전공사의 지역정압기 분해점검 및 플랜트 VR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부산도시가스 김영광 대표는 "부산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